

이야기가 있는

아트로드

판교를 걷는다



판교는 어떤 도시인가요?

규모

판교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합니다.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 운중동, 하산운동 일대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면적은 8,924,631m², 약 270만 평에 해당합니다.

유래

판교(板橋)라는 이름은 이 지역을 흘러가는 냇물 중 하나인 운중천 위에 널(판자)로 만든 다리가 놓여 널다리, 너더리 라고 부르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더리' 마을이 있었고 2017년 현재에는 '너더리' 육교가 있습니다. 널다리를 한자로 판교(板橋)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광주목 역원군 '판교원(板橋院)'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판교 말고도 '낙생(樂生)'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불렸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먼저 백현동 부근의 낙성시장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던 정세규(鄭世規)가 판교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에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였기 때문에 판교 지역을 낙성(落城)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전, 고려 충정왕 시절에 이미 낙성역을 살기에 즐거운 곳, 낙생(樂生)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

청동기 시대부터 판교 지역에는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이미 주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976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제한 지역, 즉 그린벨트였던 판교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논의됩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 도시발전과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된 개발을 통해 판교 신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세련된 주거시설, 상업시설 외에도 판교나들목 근처에 형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특징

판교는 조선시대에 한양(서울)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봉화호가 지나가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판교의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교통의 요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 분당 내곡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신분당선 판교역, 경강선 판교역이 개통되며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판교는 여러모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출발한 도시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비해 풍부한 녹지와 낮은 인구밀도 등 자연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도시를 의도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와 생산 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의 도시로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대다수의 신도시들이 베드타운으로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판교는 산업생산 기능과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판교를 대표하는 모습 중 하나인 테크노밸리가 조성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곳곳의 공원 및 하천들은 판교의 숨겨진 자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판교는 판교현대백화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고층건물 위주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줍니다. 반면 판교도서관, 판교박물관 등이 있는 서판교는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 핀란드, 일본, 미국의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한 아름다운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판교 A 코스_<도시를 알다>

Keyword: 도시, 예술, 사람

소요시간: 1시간 30분



동판교 B 코스_<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다>

Keyword: 환경, 예술, 사람

소요시간: 1시간 30분





SK 에코랩
〈하나되어〉

SK 에코랩
〈수목백년〉

유라 R&D
〈유라의 비상〉

유스페이스
〈그 곳〉
〈노래하는 꽃들〉
〈사이버호스〉

동안육교
〈밤은빛누리예〉
〈더스페이스〉

삼환하이텍스
〈일렉트론호스〉
〈트위스트〉



수질복원센터
〈생태호수〉
〈생태관찰데크〉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도시새야파트〉

넥슨
〈행복한 하루〉
〈형彰〉

NS 홈쇼핑
〈나폴레옹갤러리〉
〈맨〉

NHN
〈거대한 평은〉

유스페이스
〈그 곳〉
〈노래하는 꽃들〉
〈사이버호스〉



08

유라 R&D SK Eco Lab

06

SK Eco Hub

한국무역 정보통신

Smilegate

07

유스페이스 2

H스퀘어 N

삼한하이텍스 A

04 놀이터

09

유스페이스 1

H스퀘어 S

삼한하이텍스 B

어울공원

03

SIGONGtech

AhnLab

Smilegate

W스퀘어

한국컴퓨터

10

11

NCSOFT

롯데저류지 공원

영남길 제2길

판교테크노
파크공원

영남길 제1길

개나리교

02

쌍
봉
천

쌍
봉
천

화랑공원

COURTYARD
by Marriott

01

알파돔시티
라스트리트 1동

판교역

M

해설사
1시간 30분

도 보
40분

동판교 A 코스_<도시를 알다>

현대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판교를 산책하며 도시의 건축물과 도시 환경,

그 안의 예술을 탐구하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도시 #예술 #사람

테크노밸리 산책길

01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 **02 개나리교** → **03 언덕길**(네이처 버블, 김지원) → **04 어울공원**(놀이터) → **05 SK에코허브**(비오톱) → **06 SK에코허브**(친구들과 함께, 나정수) → **07 SK에코랩**(하나되어, 한진섭/수목백년, 나정수) → **08 유라 r&d**(유라의 비상, 김경민) → **09 유스페이스**(노래하는 꽃들, 안성희/그 곳, 노재승·김성희/사이버 호스, 김희완) → **10 동안육교**(밝은빛 누리예, 이상길/더스페이스, 정대현) → **11 삼환하이팩스**(일렉트론 호스, 조성재/트위스터, 이정주)

천천히 걸어 다니며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산책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동판교를 걸으며 무심히 지나치던 작품들에 좀 더 눈길을 보내기로 합니다.

01 판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판교**가 나타납니다. 주위에는 카페를 비롯한 식당이 많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기 좋은 벤치도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삼기에도 적합합니다.

02 걸어가다 보면 육교, 즉 **개나리교**가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혼잡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여유롭게 탄천을 감상하기 좋은 육교입니다. 금속으로 된 육교는 어느새 나무 육교로 이어집니다.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로 가득한 **판교테크노밸리**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03 언덕길을 오르다보면 반짝반짝 동그랗고 사랑스러운 구가 얽혀있는 조형물이 보이네요. **김지원 작가의 <네이처 버블>**입니다. 부드럽고도 자연스러운 형태는 따스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름에는 분수대의 역할도 하여 시원함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안내: 33p 17

04 <네이처 버블> 뒤로는 놀이터가 있는 **어울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이보다는 성인들에게 좋은 시설로 구성된 듯한, 특이한 놀이터입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근력을 다지기에 좋은, 필라테스를 떠올리게 하는 설비들이 시선을 끕니다. 근처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나와서 몸을 풀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 뭉친 근육이 있다면 이 놀이터에서 좀 돌아보세요. 야외화장실도 있으니 이곳에서 가볍게 숨을 돌려봅니다.

05 언덕을 좀 더 올라갑니다. **SK 에코허브** 앞에는 **비오톱(Biotope, 생태서식공간)**이라고 적힌 풋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식물을 접하려고 하는 노력들, 즉 공개공지의 녹색이나 옥상정원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비오톱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았어요.

비오톱(Biotope, 생태서식공간)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를 결합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함.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이른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06 비오뚝을 지나서 모퉁이를 돌면, 금속으로 된 어린이들이 모여 있네요. **나정수 작가의 작품인 <친구들과 함께>**입니다. 다정히 어깨동무하고 있는 인체조형물 사이로는 한 사람이 없을 만큼만 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작품 사이에 앉아서 함께 사진을 찍어봅니다. 작품안내: 30p **11**

07 이제는 아까의 모퉁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작은 횡단보도를 건넌 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그란 석조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진섭 작가의 <하나되어>**로, 5인의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그린 듯 과감하게 생략된 단순한 형태가 단단한 돌과 만나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요. 작가소개: 36p/작품안내: 31p **13**

<하나되어>를 보고서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SK에코랩** 앞에 이르자, **나정수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나무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가까이 다가가보니, **<수목백년>**이라는 작품입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뜻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수목백년>**이 설치된 주위로는 작은 연못이 있고 잉어들이 자기들끼리 재잘대며 헤엄칩니다.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멋진 색감의 잉어들이라서 한참을 쳐다보게 됩니다. 작품안내: 29p **10**

08 연못의 여운에 잠긴 채로 모퉁이를 돌아, 하늘로 비상하는 금속의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작은 눈과 큰 코, 넉넉한 입과 금세 꺾일 듯 가냘픈 팔과 다리의 여성이 타고 있네요. 흡사 풍자만화의 캐리커처가 살아나온 듯합니다. 제목은 **<유라의 비상>**으로, **김경민 작가의** 작품입니다. **유라 R&D** 건물 앞에 세워져 있기에 유라의 비상인가 봅니다. 작가소개: 40p/작품안내: 29p **09**

09 이제는 **유스페이스** 방향으로 가볼까요? 유스페이스는 판교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식당과 카페가 몰려있는 상업시설입니다. 점심시간이면 테크노밸리의 회사원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스페이스 광장을 압도하는 거대한 고동의 푸른색은 **노재승, 김성희 작가의 <그 곳>**입니다. 바다를 떠오르게 하는 푸른 고동 앞에 서면 파도영상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품안내: 28p 07

저 뒤로는 건물 사이를 뚫고 거대한 **<노래하는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세 곳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각각 소프라노, 알토와 테너 등의 다른 파장의 사운드를 내어 중간 지점에서 하나의 화음으로 합쳐지게 한 것으로 **안성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소프라노만 들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소프라노와 테너가 같이 들리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소개: 41p/작품안내: 27p 06

광장을 걷다보면 금속으로 된 말이 보입니다. **김희완 작가의 <사이버 호스>**라는 작품으로, 첨단을 달리는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스테인리스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사이 좋게 달리고 있는 크기도 다양한 네 마리의 말은 파스함이 살아있는 가족처럼도 느껴지네요. 작품안내: 28p 08

10 광장에서 살짝 벗어나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보입니다. 보는 이의 모습이 비칠 정도로 아주 곱게 표면 처리된 스테인리스 구는 **이상길 작가의 <밝은빛 누리예>**입니다. 구 안에 색색의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는 각양각색의 불빛들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니 제목인 '밝은 빛 누리예'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에서'라는 순 우리말이기도 하네요. 작품안내: 33p 18

<밝은 빛 누리예>에서 보이는 타원과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붉고도 거대한 조형물로 다가옵니다.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하도형으로 보이는 이것은, **정대현 작가의 <더스페이스>**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안내: 31p 14

11 유스페이스 끝에 있는 동안육교를 건너면 또 다른 상업지구인 **삼환하이펙스**가 나타납니다. 이곳도 유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의 점심과 저녁을 책임져주는 곳입니다. 사실, 판교의 물가는 결코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심정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잘 찾아보세요.

삼환하이펙스 앞에서도 야외조각 작품들이 여러 점 눈에 띄입니다. 여기에도 말들이 있네요. **조성재 작가의 <일렉트론 호스>**는 검은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말들이 빛을 뿜으며 반짝이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동적인 조형물은 밤이 되면 빛을 뿜는 한 장의 드로잉으로 낮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냅니다. **이정주 작가의 <트위스터>**도 시선을 끕니다. 선들이 춤을 추듯이 말려 올라가는 **<트위스터>**는 보는 사람의 시선과 각도에 따라 빛과 이미지가 투영되는 작품입니다.

작품안내: 32p **15** / 작품안내: 32p **16**

이제는 처음에 보았던 **<네이처버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판교신도시는 얼핏 보면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한 삭막한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곳곳에 놓여있는 예술품들을 감상하다보면 야외조각공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설사
1시간 30분

도 보
50분

동판교 B 코스_<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다>

현대도시 속의 인공자연은 어떻게 조성되었을까요?

생태도시 판교를 산책하며 도심 속에 형성된 자연 속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가져봅니다.

#환경 #예술 #사람

화랑공원 산책길

01 개나리교 → **02 영남길** (금토천 방향) → **03 동안교** → **04 쌍릉교** (운중천 방향) → **05 화랑공원** (광장/잔디광장/배드민턴코트/인라인스케이트 트랙/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 **06 판교크린타워** (전망대 북카페/판교스포츠펀터) → **07 수질복원센터** (생태호수) → **08 판교환경생태학습원** → **09 경기창조센터** (블룸, 채미지) → **10 넥슨** (행복한하루, 서동화/형形, 조병섭) → **11 NS홈쇼핑** (맨, 김경환/나폴레옹 갤러리) → **12 카카오 게임즈** (동행, 박동희·이춘성) → **13 NHN플레이팩토리** (거대한 평온, 최병훈) → **14 유스페이스** (노래하는 꽃들, 안성희/그 곳, 노재승·김성희/사이버 호스, 김희완)

판교는 녹지율이 무척이나 높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판교를 걷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동판교를 산책하며 그 가능성을 생각해봅니다

01 판교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판교**를 지나서 육교, 즉 **개나리교**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금속으로 된 육교에서 나무 육교로 이어지고, ‘**영남길**’ 표지판이 나타나면 걸음을 멈추세요.

02 판교테크노밸리로 건너가지 말고, 영남길을 따라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작고 소박한 하천을 따라가 보죠. 이 하천의 이름은 **운중천**입니다. 현대적인 판교테크노밸리의 건물들에 비해 운중천은 매우 작고 나무와 잡풀이 아무렇게나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판교가 말 그대로 널다리, 너더리이던 시절의 하천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성남투싼 아름방송
특성화창업센터

posco
ICT

SK planet

유라
R&D

SK Eco Lab

SK Eco Hub

NEXON

유스페이스 2

H스퀘어 N

삼환하이텍스 A

환상어린이도서관

11 NS
홈쇼핑
별관

12 Star games

13 N-N
NEXON

14

H스퀘어 S

삼환하이텍스 B

10 NEXON

NEOWIZ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

유스페이스 1

SIGONGtech

AhnLab

Smilegate

09

NC SOFT

08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생태호수

판교테크노
파크공원

07

판교수질복원센터

04

03 중앙
리

02 개
나
리
교

판교크린타워

05 화랑공원

06 판교스포츠타워

COURTYARD
© Marriott

01

다목적운동장
베드민턴장

한국도로공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판교돌개아트

알파동시티
라스트리트 1동

판교역

알파동시티
라스트리트 2동

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03 처음으로 나오는 다리인 **동안교**는 보자마자 건담의 얼굴, 혹은 마스크가 떠올랐어요. 걸음을 멈추고 다리를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오른쪽의 계단에 올라앉아서 길을 내려다본다면, 마치 공연장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스크 모양의 다리 기둥으로 다가갑니다. 물가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바닥이 잘 깔려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물 근처로 내려가서 주위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모래톱과 자갈, 그리고 갈대밭이 어우러진 모습이 철새도래지 같은 느낌이 들지요. 실제로 새들도 쉽게 눈에 띄입니다. 사람이 반히 바라보는데도 상관 않고 먹이를 찾고 물을 마시는 모습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04 두 번째 다리는 **쌍룡교**입니다. 아까의 동안교에 비해 쌍룡교는 맛있게 보이는 생김새입니다. 난간도 없는 작은 다리를 밟고 물을 건너요. 너무 빨리 건너지는 말고 잠깐 걸음을 멈춰봅니다. 다리 아래 얽은 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커다란 잉어와 작은 치어들이 다리 밑 그늘에서 놀고 있네요. 물고기가 많으니 오리도 자주 날아옵니다. 난간이 없어서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다리를 까치가 총총 걸어갑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말이죠. 다리의 생김새가 볼품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인간중심적인 감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남길

서울에서 문경새재를 넘어 영남으로 걷는 길. 2015년 개통됨.

본디 영남길은 조선시대 한성과 동래를 잇는 간선도로로 지난 1910년까지 존재했다. '조선통신사길' 또는 줄여서 '사행길'로도 불렸다. 경기도는 영남길의 경기지역 구간인 성남~용인~안성~이천에 달하는 72.1km를 고종, 성남 2개, 용인 5개, 안성 2개, 이천 1개의 10개 구간으로 나눈 역사문화탐방로로 복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남길의 전체 길이는 116km로 늘어났는데, 이는 도로와 아파트단지 등으로 인한 단절 구간의 우회로 개설로 인한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지도>의 영남길은 1구간인 달래내고개길로 청계산 옛골부터 판교역 입구까지 이어진다.

쌍룡교 다리 밑에 서보니 새들이 이 다리를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천장의 노출된 철근 사이사이로 새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숨어있기 좋은 다리인가봐요. 어딘가에 알과 아기새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5 쌍룡교를 지나서는 **운중천**을 따라갑니다. 이내 커다란 광장이 나타납니다. **화랑공원** 광장이지요. 혹시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광장은 자전거를 타도 좋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도 좋게끔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잔디밭이 필요하다면 바로 옆의 잔디광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잔디광장 끝에는 작은 공연장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이 좋은 계절에는 가끔 공연도 열린답니다.

화랑공원은 격렬한 운동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곳곳에 갈대가 심어져 있고 그 사이에 놓인 나무 데크를 밟고 천천히 사색하며 걷기도 좋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벤치를 눈여겨보세요. 반지처럼 동그랗게 지붕이 있는 벤치는 두어 명이 쉬기 좋게 아담한 크기입니다. 반면 열 명도 넘게 함께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벤치도 있습니다. 커다란 벤치는 우리 전통 문지방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연인에게는 반지를, 대가족에게는 한옥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작한 걸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벤치들입니다.

** 화랑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운중천을 건너가면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만큼, 장비를 갖추고 입장해야만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말고도 **농구장**,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농구공 하나, 혹은 라켓과 셔틀콕을 챙겨서 나들이하면 좋을 거예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교통안전교육장**을 둘러보세요. 야외에 설치된 각종 교통안내판을 다니며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리 신청한다면 실내에서 진행되는 시청각 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기를.

화랑공원 시설 이용안내

화랑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국제공인규격뱅크트랙 경기장. 트랙폭 6.0M, 트랙연장 200M. 직선구간 57.84M이며 곡선반경 13.12M이다. 경기장 입장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신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헬멧 및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장비 대여는 하지 않는다.

화랑공원 교통안전교육장

어린이집 혹은 1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만화 시청을 진행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로 신청할 수 있다. 홍보만화를 시청하고 외부의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실습을 한다면 그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문의전화 031)729-4383,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판교크린타워 전망대 북카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월 2, 4째주 일요일만 휴무이며 그 외의 주말과 공휴일에도 열린 공간이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휴관한다. 아쉽게도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주차는 무료.

문의전화 031)724-4660(ARS 7번), 판교스포츠펀터

판교스포츠펀터

전망대 북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월 2, 4째주 일요일에 휴관한다. 일일자유수영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료는 성인 기준 평일 3,000원 주말 3,600원이다. 평일은 13시에 50분간 이용가능하며 토요일은 6시, 9시, 12시, 15시, 18시부터 1시간 50분씩 이용가능하다. 일요일은 9시, 13시, 16시마다 1시간 50분씩 이용가능.

수영복, 수경은 물론 개인샤워도구(수건 포함)는 각자 준비해야 한다.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한다. 주차는 무료.

문의전화 031)724-4660(ARS 0번), 판교스포츠펀터

06 화랑공원 광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멀리서도 시선을 끄는 유리로 된 십자가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판교크린타워 전망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굴뚝을 개조하여 이런 특이한 형태의 **전망대**로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주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가 있는 곳은 담소방으로, 여기서는 음식물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담소방의 반대쪽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유아, 아동, 청소년, 일반, 신간, 구간, 장르별로 적절히 배치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 서가가 인상적입니다. 햇빛이 드는 환한 북카페는 책을 읽기에도 혹은 개인적인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공간이지요.

전망대 바로 옆에는 **판교스포츠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스, 수영, GX 등 스포츠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지만 중국어나 기타 등 문화강좌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 단독 건물이 갖는 안정감, 깨끗하게 수질이 관리되는 수영장 등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07 화랑공원을 나와서 전망대 북카페를 지나면 희미한 악취가 느껴집니다. 냄새의 근원은 바로 **수질복원센터**입니다. 일반의 입장이 엄격하게 제한된 수질복원센터이지만, 건물 앞은 공개공지로서 식물을 조성해놓아서 은근히 매력적인 공간이기도 하지요.

수질복원센터 앞에 서서 판교테크노밸리를 바라보면, 저 멀리로 지구를 짊어준 남자가 보입니다. **김경환 작가의 <맨>**이라는 작품입니다. 힘겹게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신화 속 아틀라스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작품안내: 25p 01

흥미롭게도, 수질복원센터 옆으로 **생태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질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배치가 아닐 수 없네요. 생태호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관찰데크**를 천천히 걸으며 바람과 햇볕을 쬐고 나무와 갈대를 바라봅니다.

08 생태호수를 나오면 길바닥에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놀이판 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놀아야 하지? 다행히 바로 옆에 설명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건물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입니다. 돌로 채운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2017년도 예술인파견 사업(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한 **‘도시새 아파트’**라고 합니다. 학습원에 찾아오는 새들의 쉼터를 만들어준다는 목표로 만들어낸, 예술가들의 프로젝트였죠.

09 판교생태학습원에서 길을 건너면 첨단의 건물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경기창조센터**는 여러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공모전도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경기창조센터 앞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서 있습니다. **채미지 작가의 <블룸>**입니다. 스테인레스의 얇은 타공판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꽃들로 이루어진, 창업을 꿈꾸는 벤처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꽃다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안내: 27p 05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어린이 중심의 스토리를 담은 체험관으로, 숲이나 습지 등의 생태계를 생생히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체험 놀이를 활용하여 환경시설, 신재생 에너지 등 생소한 환경 관련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놀이터를 추구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어린이만이 아니라 성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다. 특히 이곳의 옥상 정원은 비오톱을 독특하게 잘 구현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장마감 4시), 매주 월요일 휴무이다. 설날 및 추석연휴에도 휴무이다.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단, 맹인안내견은 예외이다. 관람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단체, 가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여야 한다. 입장료는 무료. 주차 무료.

문의전화 031)8016-0100 판교환경생태학습원

10 경기창조센터에서 네오위즈게임즈를 지나 넥슨에 이르면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사각형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체가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서동화 작가의 작품이죠. 크고 작은 조각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구처럼, 일상이 모여 삶을 구현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삶을 이루고 있는 일상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너를 따라서 돌면 정육면체 모양의 작품이 보입니다. 조병섭 작가의 <형形>입니다. 표면에 마치 지문과도 같은 울동감 있는 곡선들이 가득차 있는데, 입방체의 형태와 그 안의 곡선들은 각각 이성적 사고와 감성,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품안내: 26p 04

11 이쯤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NS홈쇼핑 건물이 보입니다. 별관에는 30여평 규모로 작지만 알찬 미술관인 나폴레옹 갤러리가 있습니다. .

12 나폴레옹 갤러리를 나와 길을 건너면 카카오 게임즈 건물 앞에 흡사 촛불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작품이 보입니다. 박동희, 이춘성 작가의 <동행>입니다. 촛불은 가까이 가보면 두 개의 형태로 되어 있죠. 두 개의 색상이 함께 어우러져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입니다. 작품안내: 25p 02

나폴레옹 갤러리

하림의 김홍국 회장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26억원에 낙찰 받은 나폴레옹의 이각모(바이콘)를 비롯한 나폴레옹의 도검, 초상화, 훈장, 전투 장면의 그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영상과 미디어 전시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폴레옹의 이각모를 본떠서 만든 모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념촬영을 해보는 재미가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월요일 휴무이다. 관람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 031)606-8525, 나폴레옹 갤러리

13 많이 걸었죠? 이제는 **네이버**, 즉 **NHN** 건물로 갑니다. NHN의 사옥 이름은 **플레이 팩토리**인데, 입구의 자전거 거치대부터 기존 기업의 사무 공간과 다른 재기 발랄함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거대한 평온'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무슨 말이나고요? NHN사옥 주변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는 자연스러운 바위들, 그것은 **최병훈 작가의 <거대한 평온>**이라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평온>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트퍼니처입니다. 이 바위들은 지친 다리에는 앉을 공간이 되어주며, 또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상에 지친 마음을 서서히 내려놓고 평온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작가소개: 39p/ 작품안내: 26p **03**

14 이렇게 평온해진 마음으로 NHN 건물 앞 육교를 건너면 **유스페이스**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상업지구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조금만 둘러보면 다양한 야외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이를 뚫고 피어난 거대한 꽃들인 **안성희 작가의 <노래하는 꽃들>**, 광장을 압도하는 큼지막한 푸른색 고동인 **노재승, 김성희 작가의 <그 곳>**이 제일 먼저 눈에 띄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네 마리의 금속말인 **김희완 작가의 <사이버 호스>**, 아주 곱게 표면이 처리되어 보는 이의 모습이 비치는 스테인레스 구인 **이상길 작가의 <밤은빛 누리에>**,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타원과 직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하도형으로 보이는 붉고도 거대한 조형물인 **정대현 작가의 <더스페이스>**도 유스페이스 주변을 걷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조각품입니다. 미래도시 판교를 상징하는 건축과 작품들을 바라보노라면, 한껏 자연을 만끽했던 산책이 어느새 꿈결처럼 느껴집니다.

작가소개: 41p/작품안내: 27p **06**

작품안내: 28p **07**

작품안내: 28p **08**

작품안내: 33p **18**

작품안내: 31p **14**

동판교 그 밖의 코스_<도시에서 유행을 발견한다>

판교의 쇼핑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판교를 대표하는 쇼핑의 거리를 산책하며
다양한 음식도 맛보고, 트렌드를 느껴봅니다.

#쇼핑 #트렌드 #예술

계획도시이자 2기 신도시인 판교는 도시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된 복합쇼핑물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습니다. 유명브랜드나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숍, 세계각국을 테마로 하는 식당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쇼핑물들을 방문해보세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다음으로 큰 백화점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기존 국내 최대 식품관이라 불리던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 식품관의 1.6배 규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식품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맛집을 대규모로 들여왔다.

거대한 백화점을 돌아보다 지친다면 옥상정원과 갤러리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쇼핑객이라면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6,000원의 입장료(성인, 아동 동일)가 있지만 ‘책’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미술관으로서 참신한 기획전시와 6천여 권의 국내외 그림책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무, 백화점은 월 1회 월요일 휴무.

백화점 입구에서는 **이용백 작가의 <로딩 이후 11년>**이라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2D의 픽토그램이 3차원의 조형물이 되어 앉아있는 모습으로서 고뇌하는 로딩, 아니 픽토그램의 몸에는 알 수 없는 디지털 기호들이 가득하며 이는 마치 정보의 시대에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연상시킨다.

작가소개: 37p/작품안내: 35p 22

아브뉴프랑

유럽형 스트리트몰을 지향하는 쇼핑몰. 그래서인지 로고에도 에펠탑이 그려져 있다. 실제로도 유럽의 거리가 가진 건축적 모티브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공간 구성으로, 단지 걷는 것만으로도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세계 각국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식당들이 입점하여 이국적인 느낌의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브뉴프랑의 강점 중 하나이다. 약 200미터에 이르는 스트리트몰 곳곳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기에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으며, 식당과 상점만이 아니라 휴게 공간, 문화갤러리, 독특한 조형물도 만날 수 있다.

신치현 작가의 <생성공간>과 최태훈 작가의 <votre sante> 두 작품이 바로 그렇다. **권치규** 작가의 <사각나무>도 흥미로운 작품인데, 아쉽게도 <사각나무>는 입주자 전용 공간인 호반 써밋플레이스에 설치되어 있기에 입주자가 아닌 일반 쇼핑객의 경우에는 감상하기 어렵다.

작가소개: 40p

라 스트리트

2016년 오픈한 라 스트리트는 유럽식 골목길 형태를 표방하는 300m길이의 로맨틱한 쇼핑몰 거리이다. 특히 1층의 상가는 갤러리처럼 전면 구성되어, 개방감이 탁월하다. 여성 고객을 겨냥한 점포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지하에는 남성 고객을 유혹하는 전자제품 상가인 일렉트로 마트, 와인 할인점 등이 입점해있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야외조각품도 빼놓을 수 없다.

라 스트리트를 방문하게 된다면 쇼핑몰 안쪽에 숨겨진 삼각형의 <모자이크 타워 (Torre del mosaico)>를 놓치지 말 것. 삼각형 타워의 세 개의 면은 번영과 화합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하여 표현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유일의 모자이크 프레스피널 학교에서 작가와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라 스트리트 입구에는 김성현 작가의 <아침이슬>과 김병규 작가의 <대지의 물-공존> 두 작품이 시선을 끈다. <아침이슬>은 스테인리스를 재료로 한 거대한 이슬방울 형태의 작품으로, 도심 위에 맺힌 이슬방울에 비치는 풍경들이 인상적이다. <대지의 물-공존>은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는 반짝이는 푸른 파도 형태의 조형물로서 주변에 청량감을 선사하고 있다.

작품안내: 34p 20 / 작품안내: 35p 21

이야기가 있는

아트로드

판교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조형물

그리고 예술가들의 이야기



01 맨
김경환

판교테크노밸리 업무시설의 관문이며 이 지역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광장 중심축에 위치한 역동적인 조형물이다. 각종 정보를 교류 및 습득하며 성장하는 인류가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테크노밸리를 상징하는 듯한 작품이다.



02 동행
박동희, 이춘성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촛불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까이 가보면 얽혀있는 곡선면 사이로 구가 굴러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나선형 구조의 금속은 위로 올라 갈수록 함께 어우러져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이다.



03 거대한 평온 최병훈

예술과 실용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트퍼니처, 즉 사용할 수 있는 예술품이다. 동양의 자연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연마하여 만들어낸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바위의 형상은 억겁시간동안 풍화를 겪은 자연물을 바라보는 듯한 거대한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작품에 앉아 잠시나마 바쁜 일상과 복잡한 상념을 내려놓고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04 형(形) 조병섭

거대한 입방체의 표면은 마치 지문과도 같은 울동감있는 곡선들로 가득차 있다. 입방체의 형태와 그 안의 곡선들은 각각 이성적 사고와 감성,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형상화한 것으로 자연의 근원적 형태와 사물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작가의 철학적 고뇌가 반영된 작품이다.



05 블룸 채미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얇은 타공판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꽃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창업을 꿈꾸는 모든 기업인의 파이팅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꽃다발이다. 꽃다발을 채운 각각의 꽃들은 테크노밸리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화합과 공생, 발전의 메시지를 담았다. 형형색색의 조명은 테크노밸리의 미래를 의미하며,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을 보여준다.



06 노래하는 꽃들 안성희

건물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꽃의 형상은 문명에도 굴하지 않는 자연의 힘을 상징한다. 세 곳에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하여, 한 곳에서는 소프라노로, 다른 곳은 각각 알토와 테너 등의 다른 파장의 사운드를 내고 중간 지점에서 하나의 화음으로 합쳐지게 된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어떤 장소에서는 소프라노만, 어떤 장소에서는 소프라노와 테너를 같이 듣게 되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07 그 곳
노재승, 김성희

광장을 압도하는 거대한 푸른색은 바다를 떠오르게 한다. 소리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강조하고자 고동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나팔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푸른 고동 앞에 서면 파도영상과 소리가 들려온다.



08 사이버 호스
김희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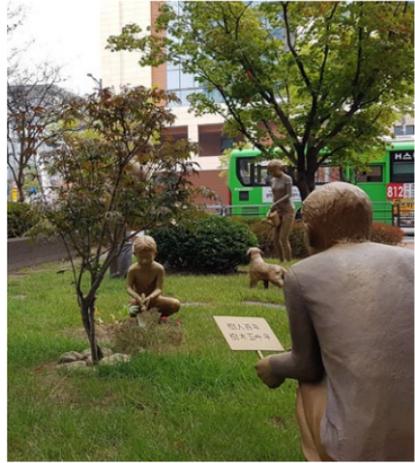
첨단 벤처산업, 과학 중심의 미래도시 판교의 이미지를 스테인리스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하였다. 소통과 교감, 인간과 과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희망찬 미래는 경쾌한 말의 움직임으로 치환하였고 사이종게 달리고 있는 네 마리의 말은 여전히 따스함이 살아있는 미래의 가족을 표현하는 듯하다.



09 유라의 비상

김경민

작은 눈과 큰 코, 넉넉한 입과
금세 꺾일 듯 가냘픈 팔과 다리의
여성은 흡사 풍자만화의 캐리커처가
현실세계로 빠져나온 듯하다. 금속의
자동차를 타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은 기업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10 수목백년

나정수

부지런히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작품 제목인
수목백년은 十年樹木百年樹人の
줄임말로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
심는다'라는 뜻으로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나무를 심듯 사람을 심고
키워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목백년 작품 옆에는 작은 연못의
잉어들이 지나가는 이들을 반긴다.



11 친구들과 함께 나정수

징검다리를 건너며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4~5학년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로 구성된 작업으로 각각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몸짓에서 소통과 창조, 배려와 봉사라는 기업의 이념을, 아이의 손에 들린 바람개비를 통해 친화경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전을 담았다. 작품 사이에 자리를 비워 관람자가 작품들 속에 함께 앉아보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2 토템 알렉산드로 멘디니

밝고 경쾌한 연보라색의 작품, 자칫 기괴해 보이는 독특한 형태감을 자랑하는 덩어리는 유니크함이 넘쳐난다. 생물체 에너지 대사에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오돌토돌한 돌기, 구불구불한 형상이 가득 차있는 거대한 타원형의 구조물은 생명과 안티에이징을 다루는 기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멘디니는 작품을 건강과 장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담은 영적상징물(토템)이라고 소개하였다.



13 하나되어 한진섭

5인의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같이 천진하고 과감하게 생략된 단순한 형태와 유려한 곡선미는 이 작품이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음에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14 더스페이스 정대현

타원과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형태는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하형으로 보인다. 단순하고 간결한 곡선과 직선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거대한 매스들 간의 틈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탐색하고 공간의 변형과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15 일렉트론호스 조성재

검은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말들은
빛을 뿜으며 반짝이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힘차게 달려간다.
과거로부터 희망의 미래로 달려가는
역동적인 조형물은 밤이 되면 빛을
뿜는 한 장의 드로잉으로 낮과는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16 트위스터 이정주

스테인리스 구조물이 춤을 추듯이
말려 올라가는 트위스터는 율동적인
선의 흐름을 수직적 이미지로 부각시킨
작품이다. 관람자의 시선과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투영되는 주변 사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특히 하절기 가동되는
분수의 물과 조명이 더해지면
다채로움이 배가 된다.



17 네이처 버블 김지원

물과 바람과 빛과 소리를 소재로 한 인터랙티브 조형물, 보고 느끼고 만지는 오감체험이 가능한 각종 시스템을 접목했다. 기술을 통해 극대화되는 예술체험 및 즐길 수 있는 IT 문화체험을 주고자 하였다. 동그랗고도 사랑스러운 원들은 서로 얽혀 부드럽고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자연을 상징하는 한그루의 나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여름에는 분수대의 역할도 하여 시원함을 선사한다.



18 밝은빛 누리에 이상길

기하학적 구의 확장과 빛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자유로움과 명쾌함, 번영과 풍요로움을 다이내믹한 리듬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보는 이의 모습이 비칠 정도로 매끄럽게 표면 처리된 스테인리스 구는 주변의 모든 것들과 교감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색색의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는 각양각색의 불빛들과 조형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명인 '밝은 빛 누리에'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에서라는 순 우리말.



19 시작 김원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도시남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콘크리트를 이용해 인체의 굴곡한 덩어리를 잡고 페인트로 채색해 현대 사회의 인물상을 위트있게 표현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쯤은 만났을 것같은 평범하고 인물들은 나 또는 내 이웃의 모습이다. 별다른 동작이나 표정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인물들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를 향해 있거나 떠나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를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 아침이슬 김성현

이슬은 맑은 날 이른 아침에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히는 물방울이다. 이는 깨끗한 물,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스테인리스를 재료로 거대한 이슬방울을 표현하였다. 도심 위에 떨어진 거대한 이슬방울에 비친 하늘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㉑ 대지의 물 - 공존 김병규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커다란 물결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단순한 형태로 표현된 반짝이는 푸른 파도는 모노톤으로 이루어진 주변의 공간에 청량감을 선사한다. 거대한 물결은 대지를 적시고 인간의 삶에도 필요한 물이 된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소망을 담은 작품이다.

㉒ 로댕 이후 111년 이용백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알려졌지 111년이 되었을 때 3D의 픽토그램 조형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작품이다. 그동안 네트워크와 정보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패턴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불규칙한 디지털패턴과 비행선, 우주선에서 볼 수 있는 불규칙한 문양들은 복잡한 정보미디어시대와 그 속에 얽혀있는 인간의 삶을 나타낸다.

판교의 도시건축

판교는 여러모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출발한 도시이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도시들에 비해 풍부한 녹지와 낮은 인구밀도 등 자연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도시를 의도하였다. 또한 판교는 주거와 생산 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의 도시로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판교의 시작은 과밀한 서울의 인구 분산이었다.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대다수의 1기 신도시들이 대도시의 베드타운으로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판교는 산업생산 기능과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판교를 대표하는 모습 중 하나인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었다.

오늘날 건축의 측면에서 바라본 판교는 주거와 업무 공간 모두 흥미로운 곳이다. 서판교 일대는 국내에서 건축가들의 실험적인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대표적인 동네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서판교의 끝 쪽에 위치한 윌드 힐스 3개 단지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가들을 선정한 사례로 분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다. 경사지 지형을 이용한 테라스 형식이나(1단지) 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데크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개별 주택들을 연결한 형식(2단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된 입면 디자인(3단지) 등 당시까지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에 새로운 거주 방식과 디자인에 대한 실험을 보여준다. 당시 거주자에게 익숙하지 않는 주거 형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던 LH 공사는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시도였으며 국내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너 동판교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해있다. 이곳은 소프트웨어, 특히 엔씨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넥슨 등 대표적인 게임 산업들의 집적지로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옥들로도 유명하다. 구글이 직원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혁신적인 기업 사옥을 만든 것처럼 국내에서도 네이버, 다음 사옥들 역시 기존과는 다른 공간을 가진 사옥들을 선보여 왔다. NHN 엔

터테인먼트는 플레이 팩토리라는 이름의 사옥을 지었다. 입구의 자전거 거치대부터 기존 기업의 사무 공간과 다른 재기발랄함이 있다. 다만 NHN 사옥인 그린팩토리가 제공했던 지역민 모두가 접근 가능했던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아이디어가 아쉽지만, 게임 회사의 사옥임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이 지역에서 멀리서부터 눈을 잡아끄는 건물 중 하나는 엔씨소프트 사옥(R&D센터)이다. 일반적으로 유리 커튼월 건물이 매끈한 표면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돌출된 픽셀 형태의 패턴을 두어 다른 건축물과 차별화된 독특한 외관을 만든다. 이러한 패턴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던 예전 엔씨소프트 사옥을 연상시키며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도 한다. 주변 건물에 비해 다소 큰 건축물이지만 중앙에 만들어진 거대한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보이는 하늘이나 풍경으로 인하여 건물은 육중해보이지 않는다. 다른 직종에 비해 젊은 기업의 이미지들이 중요하다는 점,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지역에는 눈길을 끌만한 기업 사옥들이 계속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나 기업 사옥들의 참신한 디자인들이 판교의 도시 풍경을 바꿔놓고는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사적 건물들로서 공공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공공시설로서는 2014년 판교 어린이 도서관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존 LH 공사 판교사업단 현장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공공시설로 탈바꿈한 사례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도서관 디자인을 도출해낸 과정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으로 판교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갈수록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이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은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획 및 진행

/인천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